EVA · 건축자재, 인디아 수출 "유망"

KOTRA, 신발 · 건설산업 가능성 무한 … 공급부족에 수입가격 상승

인디아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VA, 알루미늄 복합패널, 바코드 시스템 등 8가지 품목이 국내기업의 인디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제시됐다.

KOTRA에 따르면, 인디아에서는 현재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기업이 전무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인디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신발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첸나이, 라니페트, 암부르, 뭄바이, 칸푸르, 아그라, 자날다르 지역 등에서 주로 샌들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제조기업의 85%가 소규모 가내공장 형태이지만 한해 7억족의 샌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VA는 샌들, 신발 밑창에 사용되는데,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디아 신발 제조기업들이 EVA가 적용된 신발 제조로 전환하고 있다.

인디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EVA 제품은 VA(Vinyl Acetate) 비율이 18% 이상인 제품으로 수입가격이 톤당 1300-1350달러이지만 최근 인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Aluminium Composite Panel)도 혁명적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칸막이 및 건물 외벽 장식용으로 사용되는데, 플래스틱 복합패널, 내화 알루미늄 플래스틱 복합패널, 대리석 형태 패널, 카멜레온 패널 등으로 세분되며 신선하고 현대적이며 아름다운 디자인 덕에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미 국내 한 기업이 2004년 6월 인디아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비를 들여와 1일 5만스퀘어피트의 패널을 생산을 하고 있으나 원자재는 100%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디아의 건설산업은 4900억달러 규모로, 인디아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4조달러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건설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디아의 건설산업이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건축자재 시장도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약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바코드 시스템이나 휴대폰 단말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인터넷폰 전화기, 현금자동인출기, 인터넷 ISDN 터미널 및 라우터 등도 인디아 수출이 주목되고 있다.

KOTRA는 "인디아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직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맞물려 대규모 투자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상당기간 수입에 의존할 것"이라며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1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